



4면

"미안마 민주화운동 도와줄 대책 마련"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음 2월 4일) 제27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달부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북도, 정부 방침에 맞춰 2분기 접종계획 발표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우선으로
75세 이상 화이자·65~74세 아스트라제네카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화이자 백신 배송
1002회 접종분으로 오늘부터 19일까지 접종

전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계획을 마련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접종하는 등 본격적으로 백신접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계획에 맞춰, 전북도 2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2분기 접종계획은 정부의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해 2~3월 접종경과 및 백신수급상황을 반영, 대상과 순서를 결정했다.

2분기에 우선,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모두 높은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75세 이상은 시·군과 연계해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4월부터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부터 단계적 접종을 시작하고, 6월부터 투석환자 등 만성 질환자 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에 앞서 1분기에 미뤄졌던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2만1천명을 대상으로 3월 4주부터 접종할 계획이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의사의 방문접종,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취약시설 중 노인주거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9,000명)는 4월 1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2분기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38만6,000명 중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 18만2,000명은 4월 1주부터 예방접종센터

에서 화이자를 접종하고, 65~74세 어르신 20만4,000명은 5~6월에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질병청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시기를 안내하고, 위탁의료기관 등에 개별 방문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특수교육 종사자 및 보건교사와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보건의료인)·사회복지수련(경찰,해경,소방,군인 등)을 대상으로 4월~6월까지 백신 공급에 맞춰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자체접종이나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2주간 2만6,971명에게 접종을 시행했다. 추진단은 원활한 백신접종 시행을 위해 오는 31일 전주화산체육관 개소를 시작으로 군산, 정읍, 남원 등 4월 1일 개소, 익산, 진안, 고창은 4월 15일 개소를 목표로 접종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순차적으로 6월까지 시·군 15개소의 접종센터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은 해동 이후, 120시간으로 운송시간을 고려할 때 안전한 접종을 위해 4일 이내 접종을 완료 해야하며, 15일 백신 수령 이후, 병원별 접종일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화이자 백신이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수송되고, 차질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분기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실시를 통해 전 도민의 70% 이상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백신 냉장고 앞 도착한 화이자

15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화이자'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도로 배송될 백신 물량은 167vial(1,002회 접종분)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인 전북대병원은 32vial(192회 접종분)이 15일에 배송되며,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91vial(546회 접종분), 남원의료원 44vial(264회 접종분)은 16일에 배송될 계획이다.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 학습권 보장 '법제화'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관련 규칙 공포·시행
폐쇄 시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학부모 동의 등 명시

도내 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 위임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원을 방지해 유아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는 ▲폐쇄 시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학부모 동의 ▲유아 전원 조치 ▲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 전 이행사항 등

을 명시했다.

먼저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 처리 계획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한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 말로 정했지만 재원 유아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2월 말일에 폐쇄하는 경우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

진안 전군민 용담호 식수공급 '한목소리'

지역 사회단체 "전국 수도정비 2040계획 반영 요청할 것"

진안군이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관련 '진안군 뉘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 내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15일 진안군 애항운동본부(본부장 우태만)를 비롯한 관내 7개 사회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진안군 전군민이 용담호 식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자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용담호로 인해 진안군민이 겪는 희생들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희생들을 통해 조성된 용담호 맑은 물을 코앞에 두고도 군민의 49%밖에 먹지 못하는 현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국 수도정비 2040 계획에 반드시 진안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학기중 폐쇄인 경우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 조치 계획(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 수립,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육부 지침으로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을 금지했으나,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내장산국립공원 | 구절초테마공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100선'에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테마공원을 선정했다. 일상에 지친 심신이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시간을 정읍에서 가져보자.

작사랑하듯, 조심조심 펼쳐보이는 풍경
수줍은 아름다움 그 속에 들어서니
선향이(仙飴)이 따로없네



www.jeongeup.go.kr